을 聯想할 수 있다。

이 鬼面瓦에서 特히 興味를 끄는 것은 下部中央에 半圓形人面을 實寫的으로 넣고 그 周邊에 雲文 等을 配置한 것이다。顔面은 陰刻으로 極히 拙劣한 戲畵的인 手法인데에 더욱 興味를 돋군다。人面瓦는 日人 有光氏가 慶州 興輪寺址에서 發見한 것이 있을 뿐이며 鬼瓦에 이러한 顔面이 들어 있는 것은 只今까지 그 例가 드문 것으로 보인다。(慶州博物館藏)

〔註〕京都大學版 新羅古瓦の研究參照

現高 一七㎝ 幅 二二·五㎝ 厚(下端) 四·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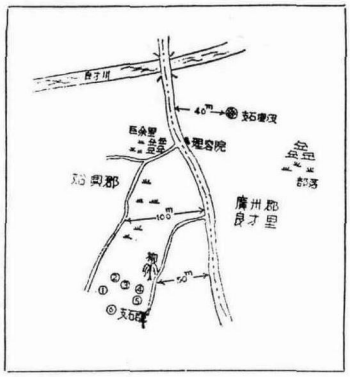
京畿 始興郡內 支石墓

金 武 龍

一九五八年 六月 八日과 一九五九年 四月 五日의 兩次에 걸쳐 始興郡 新東面 良才里와 牛眠里所在 支石墓를 調査하였다。

良才里支石

良才川 南方 約 百m地點에 꽤 넓은 空地가 있어서 잔디밭이 있는 곳에 支石이 埋沒되었다。그 分布狀態는 圖面과 같으며 型式은 北方式에 屬한다고 본다。一號의 蓋石은 不定形楕圓形으로 西側은 地面에 接하였고 東側이 六·七㎝의 높이로 撐石이 받쳐있다。坐向은 東南向이다。其他는 一部埋沒되어 構造不明이며 實測値(m)는 다음과 같다。



	蓋石長	蓋石幅	蓋石厚
一號	四·五	二·八	〇·四五
二號	二·四五	一·四	不明
三號	三	二·三五	不明
四號	三·六	二·四	〇·七
五號	四號支石의 足石?		
六號	二·三	一·九	〇·三

이 支石은 「괴바위」라고 부르니 이는 「고인바위」의 준말이며 이 洞里는 巨餘里인데 「계리」라 俗稱함은 興味있는 일로서 「巨餘」의 「거여」와 「고여」가 語音上 비슷한데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洞里에서 年一回 도장祭(山神祭)를 지낸다고 한다。

牛眠里支石

良在里 支石所在地 西南쪽 山麓에 典型的 北方式 支石이 있다。이 附近에서는 俗稱 「고름장바위」라고 부르며 支石 바로 위에는 屛風같은 바위가 둘려있음은 이상스러웠다。蓋石長 三m、幅 三m、厚 〇·五m이며 地上高는 〇·七m이다。高 〇·七m의 二個의 定石밑에는 石室이 있어 長 一·七m、廣 一·三m이며 坐向은 正南向이다。

資 料

◎ 帆舟文숫기와

張 南 植

今春 慶州 金庾信墓附近에서 發見되었는데 一端에 橫으로 上下 二列로 帆舟文을 찍었는데 上列에 五隻 下列에 六隻이 있다。그 밑에는 波狀文이 있고 表面에는 波濤文、菱形文、裏面에는 布目文이 있다。아마도 護骨用으로 쓰이던 것이 아닌가 한다。

長 三六㎝ 厚 二·八㎝ 幅 二·三五㎝ 二〇㎝

考古美術 뉴ㅡㅅ

◎ 蔚山古墳發掘

國立博物館에서는 蔚山郡 溫陽面 三光里 貴旨部落 송낙山에 散在한 約 六·七十基의 古墳을 整理하고 있는데 十月末 現在 臺付長頸壺、臺付坩、高杯、帶狀肥